

『공룡놀이터에서 조선산업의 메카로 고성군』

지리교육과 3학년 설현석

1. 위 치

1) 수리적 위치

단	지 점	극 점		거 리
		동 경	북 위	
동 단	동해면 용정리 산49	128° 30' 03"	35° 00' 42"	동서 39km
서 단	하이면 덕호리 859-10	128° 06' 02"	34° 54' 41"	
남 단	하이면 덕명리 산203-3	128° 07' 56"	34° 53' 07"	남북 32km
북 단	개천면 가천리 산111-1	128° 16' 23"	35° 07' 46"	

2) 관계적 위치

한반도 육지부의 남단으로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부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구역상 동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으며 서로는 사천시, 남으로는 통영·거제시, 동북은 마산시, 서북은 진주시와 접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2000~2020년) 시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구성인 연안 국토축과 환남해축에 위치하면서 남해안 관광개발 계획에서 동남 관광권에 속한다.



《고성군 행정구역도》

2. 인문·자연환경

1) 지리적특성

- 지맥은 동북에서 서남으로, 지세는 서북이 높고 동남이 기우는 편이다
- 전반적으로 표고¹⁾150m, 경사 15%이하로 험하지 않은 지형이다.

- 큰 강이나 높은 산이 없어 사방의 기복이 없고 하천은 군의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흐르고 있다.
- 해안도와 만이 많은 리아스식²⁾ 해안이며 소하천변에 크고 작은 들이 조성되어 있는 농·어업의 적지이다.

2) 기후

지리상으로 한반도의 남부지역인 경남의 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과 서남일대는 바다에 임하고, 서·남·북은 육지인 반도지대로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은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의 계절풍이 불어온다.

1996~2005년의 10년간 평균기온은 15.4℃로 극기온은 최고가 1994년 7월 21일 39.5℃, 최저는 2001년 1월 15일 -14.7℃이다. 강우량은 10년 평균 1,412.6mm이며, 6~8월에 844mm로 연중 강우량의 1/2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으며, 최저는 12월에 24.9mm이다.³³

3) 인구와 면적

- 면적은 516.9km²(전국의 0.5%, 경남의 4.9%)
- 인구는 2006. 12월 현재 55,309명(남자:27,410명, 여자:27,899명)이다.

3. 고성군의 역사

건국기원은 각종 유물들로 보아 2천년 이전의 삼국시대 변한지역 열 두나라 중의 하나인 변진 고자미동국으로 보여지며, 이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고성군은 서기 42년부터 461년간은 소가야의 도읍지였던 곳이기도 하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주(州), 군(郡), 현(縣)을 한식(漢式)으로 개정할 때 고자군(古自郡)을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 들어 6대 성종 14년(995)에 제반제도의 재편으로 고주자사를 두었다가 뒤에 철성부로 개칭되었다. 원종 7년(1266)에는 주(州)로 승격되었고 충렬왕 때 철성으로 복원되었다. 조선시대 들어 문종원년에 고성성이 축성되기도 하였으나 고종 때 진주부로 속하여 있다가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896년 13개 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상도에서 경상남도로 분리 도청소재지를 진주로 한다. 대한제국, 일제시대를 거쳐 1938년에 고성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고성군은 1읍 13개면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

1)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

2)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나팔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만을 이루는 해안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고성군의 산업경제

고성군은 전형적인 농·어업을 주업으로 삼는 도시이다. 고성의 특산물로는 쌀, 단감, 토마토, 고추, 호박 등이 있고 수산물로는 멸치, 갯장어, 대하, 굴 등이 있다. 특히 고성군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여 양식어장의 적지로 특히,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해역의 자란만은 미국 F.D.A에서 지정해역으로 지정한 굴 및 피조개양식의 최적지이고, 동해면, 거류면이 접해 있는 진해만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산 피조개 채묘생산지이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보면 국가단지가 없지만 울대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 세송농공단지 등 3개의 농공단지³⁾가 있다. 1차 산업이 주업이나 농공단지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5. 관광자원

1) 고성상족암 군립공원



《상족암 군립공원》

출처: 네이버카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안에 있다. 1983년 11월 10일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5,106km²에 이른다. 지형적으로 해식에 해당한다. 파도에 깎인 해안지형이 육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해식애가 형성되었으며, 그 앞에 평탄하게 있는 암반층은 파식대이다. 상족암 앞의 파식대에는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3)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

2) 고성농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에 전승되고 있는 농부의 들노래로 1984년 1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84-1호로 지정되어 있다.

3)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

출처: 고성오광대보존회

오광대놀이는 고성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경남 함천군의 초계 밤마리장터에서 대광대(竹廣大)패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오광대놀이는 의령, 진주, 산청, 통영, 고성 등지로 전파되었는데, 고성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다.

고성 오광대놀이는 걸립이나 집돌이를 하여 놀이 비용을 염출하였고, 장터나 그 밖의 놀이마당에서 연기하였으며 악사들은 농악대가 담당하였다. 오광대는 다른 가면극들처럼 춤이 주가 되고 재담과 창이 곁들여지는 탈춤극인데, 춤은 염불타령, 굿거리 등 민속무용으로 이어지며, 특히 뿔과리를 주조로 하는 장단맞춤은 오광대만이 갖는 멋들어진 춤이다. 고성 오광대는 다른 지방의 오광대와 비슷하나 벽사의 의식부나사를 물리치고 상서로움을 비는 사자춤이 없다. 기능

보유자 8명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6. 고성군의 도시 마케팅

1) 공룡에서 조선산업의 메카로

2007년 7월 16일 경남 고성에 조선산업특구가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를 조선산업특구는 동해면 내산지구(21만6000㎡), 양촌·용정지구(192만㎡), 장좌지구(50만8000㎡) 등 3개 지구에 총 264만4000㎡ 규모다. 총 6038억원의 민간규모가 투자된다. 내산지구에는 해양설비, 후육관광 생산 기업인 삼강특수공업(주)이 1000억원을 투자해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를 세운다. 양촌·용정지구에는 통영 삼호조선(주)을 주력으로 6개 업체가 참여하는 삼호 컨소시엄이 4300억원을 들여 중대형 특수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건립한다. 장좌지구는 거제의 (주)혁신기업이 738억원으로 중소형선박 건조용 조선소를 짓는다. 내년 4월 특구 조성에 들어가며 내산

과 장좌지구는 2010년, 양촌·용정지구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조선산업특구가 본격 가동되면 3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6만여명의 인구유입, 5조 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자연사 엑스포인 '세계 공룡엑스포'를 통해 '공룡나라'로 명성을 떨친 고성군은 공룡엑스포와 산업특구를 연계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 지역특구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3) 고성의 도시마케팅⁴⁾

고성군은 공룡 화석이 많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공룡엑스포를 유치하였다. 그래서 고성군을 생각하면 공룡이 떠오르게 이름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그 자연환경에 맞는 새로운 산업 즉, 조선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없애므로써 조선산업업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것을 도시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마케팅에서 도시이미지의 재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룡엑스포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재창출하고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인해 조선업체들이 모여들 경우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약 5조 60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일으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4) 고성의 문제점

고성군의 도시마케팅은 고성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강구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이 하고 있는 장소마케팅은 상죽암 밖에 없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고성군이 내세운 공룡마케팅의 핵심은 상죽암이지만, 상죽암은 행정상으로는 고성군에 속하나 거리로 보면 사천에 훨씬 가깝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사천시민들이 고성군민들 보다 더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들 또한 사천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죽

4) 특정한 장소에 대한 행동을 새로이 창출해 내고 유지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함

암으로 인해 생기는 관광효과를 고성군이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고성군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김재일/ 2000 / 생태기행 / 당대
- 권용우/ 2002 / 도시지리 / 박영사
- 전종한 외 2인/ 2005 /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참고 사이트》

- 고성군청(<http://www.goseong.go.kr>)
- 고성오광대보존회(<http://www.ogwangdae.or.kr>)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KDI(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9453&menu=1)
- CBS뉴스(<http://www.cbs.co.kr>)